

지스트 블록체인지능융합센터·리버밴스(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시스템 구축 논의



▲ 문승현 지스트 전 총장(왼쪽 네번째)과 KACCUSA 김미경 글로벌 사업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블록체인지능융합센터와 교원창업기업인 리버밴스 주식회사(센터장 및 대표: 이흥노 교수)가 지난 11월 7일(월) 지스트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스트 블록체인 지능 융합센터(BIC) 센터장 겸 리버밴스(주) 이흥노 대표, 지스트 초빙석학 문승현 교수, 지스트 함병승 교수,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 방호열 회장,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 송인범 부회장, 글로벌 본부 김미경 본부장, 워싱턴 상공회의소 박용국 회장, 한국ICT융합협회 백양순 회장, 지스트 기성근 기술사업화센터장, 지스트 이지오 연구원, 최해웅 연구원, 강승범 연구원, 리버밴스(주) 강주성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리버밴스(주)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개최되었으며, 양 기관은 미주시장 진출과 무역 촉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중앙, 확장, 보안 트릴레마를 극복, 이더리움 이스탄불과 같은 월드랜드(WorldLand)* 프로토콜 스위트를 검증 및 테스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오픈소스 코드와 출판물로 지구촌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시스템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 **월드랜드(WorldLand):** 리버벤스가 추진하는 월드랜드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탈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민의 경제 주권 보호' 라는 모토 아래 최신 버전의 이더리움 메인넷을 하드포크하여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분산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블록체인 경로 추구를 목표로 한다. 보안과 분권화 강화를 위해서는 PoW(Proof-of-Work, 작업증명)를 포기하는 것보다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에 있다. 월드랜드의 알고리즘은 기존 해쉬 기반 PoW를 개선한 VC(verifiable computation) 알고리즘을 채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월드랜드의 블록체인은 '컨센서스와 가상 머신 모두에서 양자 내성(Post-Quantum) 보안성', '컨센서스 엔진의 ASIC 저항성', 'PoW의 장점을 계승하고 탈중앙성을 강화하는 컨센서스 엔진' 기능을 탑재한 완전 기능형 블록체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



▲ 이흥노 지스트 ITRC 블록체인지능융합센터장 및 리버벤스(주) 대표이사가 7일 지스트 열린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스트 블록체인 지능 융합센터(BIC)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ICT 연구센터육성지원 사업(ITRC)에 선정되어 '영지식 센싱, 암호인증,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융합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지스트를 포함해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가 참여하고 있다.

리버벤스(주)는 2020년 1월 설립된 교원벤처기업으로 탈중앙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 제공기업이다. 설립 2년 만에 보유 기술에 대한 강점을 인정받아 TIPS R&D 엔젤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